

문화 · 관광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신년 인사회 오늘 개최... 설립 10주년 성과 · 비전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4일 오전 11시 라한호텔에서 '2025년 문화예술 · 관광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함께한 10년, 특별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재단은 13일 완산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직원 소개, 지난해 성과 및 올해 업무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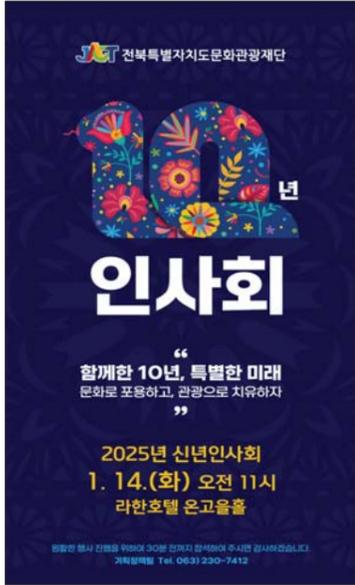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예산, 조직, 공간 등 다양한 면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2016년 약 179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4년 약 451억 원으로 150% 이상 증가했으며, 직원 수도 22명에서 65명으로 195% 늘어났다.

조직 체계는 초기의 팀 체계에서 본부와 센터를 포함한 전문 조직으로 확장됐으며, 운영 공간 역시 예술회관 1개소에서 시작해 하안양옥집, 관광기업지원센터 등 7개소로 확대됐다.

지난해 재단은 경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도입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도정과 발맞춰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도내 · 외 49개 기관과 2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16,189명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도민 892,683명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청년 175명, 장애인 170명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 138,777명에게도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으로 문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5년 문화예술 · 관광 신년 인사회' 포스터

격차를 해소하며 '문화가 있는 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관광 분야에서도 재단은 전북의 치유와 의료를 결합한 관광 콘텐츠와 해외마케팅을 통해 국내관광객 128만 여명, 해외관광객 30,121명을

유치했다. 관광 전문 인력 318명을 양성하고 1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 관광기업 117개사를 발굴했다. 특히 지난해 재단의 관광 기업이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5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키며 전북 관광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 재단은 예술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14개 시 · 군 지역민이 있는 곳곳에서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7,000명의 예술인 지원과 900,000명의 문화예술 향유, 그리고 139,000명의 취약계층 문화예술 복지를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예술가들의 현장과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00인 예술인 오픈 테이블'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해외관광객 40,000명 유치와 전북형 관광기업 130개 발굴을 목표로 전북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웰니스 기반 관광콘텐츠와 인구소밀지역을 연계해 지역 관광 스타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만의 축제, 무형유산, 미식, 태권도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서부내륙권 및 조공역권 연계를 통해 공동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문화와 관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단 신년인사회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지역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7900만원 확보...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 2년 연속 선정

역사문화도시 익산시가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는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문화가 이끄는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에서 활동할 대표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익산 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된 극단 '작은소리와 동작'은 1995년에 창단한 향토 극단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받게 됐다.

'작은소리와 동작'은 다양한 연극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인력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4월 연극 '사파가 사람들'을 시작으로 8월 '준왕 한(韓)'을 열다'까지 총 7회에 걸쳐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도내 6개 연극단체와 협동해 인화동 근대문화유산 일대에서 거리 연극 축제인 '무대밖플레이'를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예술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문화예술 수준 향상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韓)문화 발상지인 익산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맞춤형 관광객 유치 지원 눈길

순창군, 개별 · 단체 관광객 등 다양한 관광 수요 겨냥 지원책 마련

순창군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관광진흥 조례를 근거로, 개별 여행객부터 단체 관광객까지 다양한 관광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업은 개별 관광객을 위한 체험비와 숙박비 지원이다. 2인 이상 관광객이 순창군의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의 경우에도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1박당 1인 1만원까지 실제 숙박비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단체 관광객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20인 이상 단체가 순창군의 유료 · 무료 관광지를 각각 1개소 이상 방문하고 관내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버스 1대당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계를 겨냥한 지원책도 눈에 띈다. 관외 초 · 중 · 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단체에게도 버스 1대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코데일과 연계한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순창 인근 기차역에서 순창군까지의 버스를 지원한다.

순창군의 주요 관광지원으로는 강천산 군립공원, 강천힐링스파, 용굴산 하늘길 등의 유료 관광지와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해계산 출렁다리, 향가터널 등 다양한 무료 관광지가 있다.

또한 20여 개의 농촌체험시설에서 전통고추장 만들기, 승마체험, 천연염색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의 순창 방문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 신청은 관광 5일 전까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광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소리 관' 완창 무대 출연자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에서는 2025년 판소리마당 '소리 관'에서 완창 무대를 선보일 출연자를 모집한다.

판소리 다섯 바탕(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중 한 바탕을 완창할 수 있는

음악적 역량을 갖춘 19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소리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5명의 출연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이들에게는 무대 운영 지원과 출연료가 제공된다.

판소리마당 '소리 관'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 공연의 정착과 계승, 보존, 대중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시작된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기획공연으로, 2025년 공연은 4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이메일(nice12s@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달하미술관, 지역작가 발굴 위한 전시 작가 공개 모집

정읍시 달하미술관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과 전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작가 조명 전시'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전시는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여러 장소에서 선보이며 지역 예술의 매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접수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정읍시립박물관에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전시 공간과 홍보, 참여비가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둔 작가로, 특히 젊은 출신이나 정읍에 거주하는 작가와 청년 작가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소묘,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시각예술 장르를 포함하며 상업적 이

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는 제외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4명의 작가는 2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50일씩 총 4회에 걸쳐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지역작가 조명 전시'는 기존의 다수 작가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전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작가의 독창성과 작품 세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